

乾隆帝(在位 1736~1795)의 西學觀論評

崔 韶 子*

- I. 序論的 考察
- II. 宣教師 認識
- III. 天主教 認識

- IV. 西學理解 및 活用
- V. 論 評

I. 序論的 考察

本研究는 康熙 雍正의 뒤를 이어 乾隆帝(在位 1736~95)¹⁾의 西學觀의 論評을 시도함으로써, 明清時代(16~18世紀) 西學을 어떻게 이해하고 受容하였는가에 대한 政府의 입장을 일단락 지으려는 것이다.

主知하는 바 康熙帝의 統治가 적극적인 華化의 時期였다면 雍正帝의 경우는 소극적인 華化期로 國粹的 女眞의 성격이 짙었다고 하겠다. 또 康熙帝가 寬容의이였다면, 雍正帝는 嚴正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先帝의 諸特徵을 종합한 형태로서 흔히 乾隆帝를 舉論하는데 과연 西學의 문제에 서로 같은 성격에서 볼수 있을런지.

실상 지금까지 乾隆年間의 西學, 西洋 취미, 宗教문제는 예수회서간집을 토대로 後藤末雄이나 矢澤利彦의 研究가 많다. 그러나 예수회서간집에는 의도적이며 주관적인 보고서도 많지만, 반면 그만큼 당시의 朝廷 내부

* 梨花女子大學校 史學科 教授

1) 乾隆에 관한 研究로는 後藤末雄, 『乾隆帝傳』, 東京, 生活社, 1942. (1969年 平凡社刊行의 『中國思想のフランス西漸』 1, pp.144~233 參照). 杉村勇造, 『乾隆皇帝』, 東京, 二玄社, 1961. H. Kahn, *Monarchy in Emperor's Eyes: Image and Reality in the Ch'ien-lung Reig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1, 等이 대표적인 것이다.

의 사항을 상세히 전해 주는 것도 없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또 淸朝側의 자료는 中國의 입장에서 의도적인 선별에 의하여 제시된 것이 많아, 그 나름의 문제가 있지만 本稿는 가능한 한 후자적인 자료에 의하여 보다 객관적인 評論을 시도하고자 한다.

乾隆帝는 공평하게 西洋文化의 가치를 인정하고 어떤 부문에서는 中國文明이 西洋文明에 뒤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의 이해를 위하여 18世紀라는 時代背景 속에서 乾隆이 받은 敎育, 그의 學問, 宗教, 生活, 취미 등이 그의 西學의인 諸問題와 어떤 관련을 가지며 조화를 이루는가 고려해야 할 것이다.

18世紀는 政治 社會 經濟 對外關係 文化發展 어느면에서도 發展과 번영을 누렸던 시기이며 特히 淸朝文化의 精粹를 이룩한 것은 乾隆年間이었다.

對外的으로 西洋의 국가들은 制限된 淸朝의 對外貿易政策에 불만을 품고 끊임없는 改善策과 확대를 요구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았고, 계속 中國의 對外貿易은 出超라는 經濟的 好황을 누렸다. 또 中期이후 乾隆이 자부하는 소위 「十全」은 그 軍事的 財政的 소모에 비하여 不必要한, 不經濟的인 戰役이 많았으며 그 결과 軍事力의 이완이나 부패상은 물론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였다.

反面 國內的으로 대규모적인 도서편찬 사업으로 「四庫全書」가 刊行되어 文化史上 乾隆의 업적이라고 평가도 받지만, 이는 동시에 學者들의 학문 활동의 제한과 사상탄압을 초래하였다는 비판과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 1770年代의 山東의 淸水敎反亂(一名 王倫의 亂)은 太平盛世를 구가하던 乾隆統治의 이면에 불만과 불안의 요소들이 응집되어 나타난 사건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번영과 발전의 太平盛世라는 外的인 平穩속에 부패와 무질서와 압박이라는 社會不安의 諸要素들이 응집되어 있던 시기에 최고의 福·祿·壽를 누린 乾隆帝는 密健法에 의하여 즉위하였고, 누구보다도 皇帝로서의 자질과 소양과 능력을 갖추었던 人物이었다.

乾隆의 西學觀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가 받은 敎育이나 성격은 매우 큰

도움이 됨으로 간단히 소개한다.

乾隆(弘曆, 雍正의 第4子)은 密健法에 의하여 繼位를 이었지만, 그를 皇太子로서 눈여겨 본 것은 祖父인 康熙帝였다. 그는 12才때 할아버지를 따라 熱河旅行을 하던중 木蘭의 수렵에 참가하였다. 마침 大熊의 돌연한 공격을 받았는데 어린 나이지만 조금도 놀라지 않고 馬上에서 自若하게 고삐를 잡고 있었는데 康熙帝가 그의 대담함을 보고 비상하게 기뻐하면서 恩遇를 加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일은 繼嗣에 고민하던 康熙帝가 弘曆을 次帝로 할 것을 결정했는지도 모른다²⁾고 한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 부터 神童이라고 하였는데 9才때 福敏(후에 大學士)앞에서 독서를 시작하였는데 총명한 이 皇子는 진보가 뛰어나 한번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았고, 鐵砲弓術等 학습에서도 20發中 19發은 命中하였다³⁾고 한다.

한편 H. Kahn⁴⁾은, 弘曆이 弘晝(雍正의 第5子)와 함께 받은 皇世子教育에 대하여 소상히 기술하고 있는데, 그는 최고의 스승 15人(滿洲人 5名, 漢人 10名)을 모셨는데 그중에는 胤祿, 胤禧를 비롯하여 鄂爾泰, 張廷玉, 蔣廷錫, 蔡世遠, 梁詩王, 王懋竑 등이 있었다. 또 歷史書를 많이 읽었는데 그는 唐의 歷史에 여겨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고 五代史, 新唐書, 實錄 등은 읽었고 歐陽修를 예찬하였다. 그의 好學性은 즉위 때 「朕은 幼少부터 궁중에서 독서하고 講誦하기를 20여년 되었으나, 아직도 중단한 일 없었던 일개 書生이었다」라고 自回하고 있는 사실로도 그가 교양인으로서나 中國人으로서나 손색없는 인간으로 성장하였다고 말하고⁵⁾ 있다.

乾隆은 또 母親의 경험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太皇太后는 총명

2) 杉村勇造, 앞책, pp. 11~12.

A. Hummel ed. *Eminent Chinese of the Ch'ing Period*,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3, Vol. 1 p. 369.

3) 杉村勇造, 앞책, p. 11.

4) H. Kahn "The Education of a Prince: the Emperor learns his roles", *The Rise of Modern China* (I. Hsü ed.) Santa Barbara, 1971. pp. 38~57.
_____, *Monarchy in the Emperors Eyes*, pp. 98~167.

5) 杉村勇造, 앞책, p. 13.

한 여인으로 帝의 교육은 그女の 지도에 의하여 행해졌으며 漢人學者들은 儒敎에 의한 帝王學을, 滿洲人은 武術을, 예수회 선교사들은 數學等을 가르켰다⁶⁾고 한다. 特히 예수회 선교사들의 역할에 관하여 H. Kahn은 乾隆이 학생으로서 예수회 선교사들로 부터 엄밀하게 배우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기계류의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 선교사가 獻上했던 時計에 대한 乾隆의 詩에서도 나타나며, 직접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M. Benoist 와의 오랜 대화에서 數學 天文學 地圖 測地 醫藥 水力學 航海 造船 石版印刷 等에의 관심을 이야기한 것⁷⁾으로도 알수 있다.

乾隆은 政治家로서 軍人으로서 우수하였으며 그의 詩는 古典의 교양을 구사한 것만도 10萬首에 이르렀으며, 今體, 古體, 長短, 때로는 詩題도 풍경 題畫詩 外에 유리 glass 窓, 유리 glass 鏡, 千里鏡 朝鮮牛, 氈廬(蒙古包), 定窯陶枕, 宋徽駱駝等 자유자재였다. 또 그의 拔群의 어학력은 五族言語(滿洲語·蒙古語·中國語·Tibet 語·Uighur 語)에 통달하였으며 독서가로 善本수집에 흥미를 가지고 政務의 여가에 서적을 수집하는 것의 帝의 일과였다⁸⁾고도 한다.

또 乾隆의 繪畫는 19才때 부터 시작하여 御筆三余逸興圖의 自跋에서 처

6) 앞책, p. 6.

7) H. Kahn, *op. cit.*, p. 124.

M. Benoist 가 보낸 書簡은 많으나 그중 皇帝와의 대화는, “在北京宣敎師 Benoist 師의 某氏에게 보낸 最初의 書簡”(1773. 11. 4)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 5, 紀行編, 東京, 平凡社, 1974, pp. 337~71.

○ “Benoist 師의 第2 書簡” 『中國の布敎と迫害』 東京, 平凡社, 1980, pp. 299~320.

○ “Benoist 師의 第3 書簡” 『中國の醫學と技術』 東京, 平凡社, 1977, pp. 359~81. 등 참조.

8) 三田村泰助 “康熙帝と乾隆帝” 『中華帝國の崩壞』 世界文化社, 1969, p. 124. 杉村勇造, 앞책, pp. 25~6.

杉村氏는 그의 善本수집의 취미에서 시작되어 『四庫全書』의 편찬은 乾隆 37年 正月 各省 督撫에게 上諭를 내려 舉業(試驗), 族譜, 尺牘, 應酬等의 詩文을 제외한 모든 유용한 서적을 수집하므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음에는 花鳥畫를 愛寫하였으나 소장하고 있는 林椿 邊鸞 黃筌 徐熙等의 작품을 주로 모사하였으나, 후에는 자연계의 일을 자기눈으로 관찰하고 古人的 眞似는 하지 않았으며, 規矩法則에 사로잡히지 않고, 四季의 興起에 때때로 淸思를 쏟고 긴 날을 보내게 되었다⁹⁾고 하였다.

이러한 藝術家的인 기질과 취향은 그를 情念의 世界에 심취하게 하였는데 그 근처에는 官能과 優雅를 구하는 享樂主義적 요소가 있었다.

여하튼 乾隆은 全盛의 時期에 帝王中の 帝王으로서 긴 生涯를 豪華絢爛의 一色으로 康熙가 이상을 추구한 聖王政治에 힘썼다면 乾隆은 五族의 共主로서 군림하였고 그의 西學취미는 美術, 工藝方面에 특히 열중하였다고 評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活用가치나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N가 우선될 수도 있지만, 그의 西學觀의 출발은 宣教師인식에서 비롯되므로 선교사인식, 宗教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西學理解 그리고 論評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時代로 너무 광범하고 18世紀가 對西洋貿易에 絶정을 누렸다는 點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점은 後日 논의하려고 생각한다.

II. 宣教師 認識

康熙帝는 국가적인 필요와 개인적인 흥미에서 西洋文化 특히 天文 曆法 數學 製砲 醫藥 測地같은 實用的 自然科學類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 전달자로서 宣教師들을 총애하였으며 정부관리에 임명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1692年 天主教를 公許하였고 그후 典禮의 논쟁에서도 특히 예수회 선교사들을 옹호하였다. 그리고 朝廷宣教師들은 地方活動者들의 보호자로서 어떤 敎團인가의 한계를 넘어서 諸역할을 담당하였고 어느정도 수준급의 대우도 받았으며 康熙帝 역시 그들의 宗教活動을 적극 지

9) 杉村勇造, 앞책, p. 27.

원하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한 관용을 베풀었다.¹⁰⁾

그러나 雍正帝는 즉위과정에서 Morao 선교사의 允禱翁립사건과 관련하여 宣教師들을 질시하였으며, 朝廷에서 曆務, 技藝活動에 종사하는 學僧을 제외한 在省 宣教師는 異教을 선전하고 衆民을 현혹시키는 有害無用한 사람이라고 退去令을 내렸으며 西洋文化에 관하여는 거의 흥미를 가지지 않았고 道敎를 篤信하였다.¹¹⁾ 때문에 선교사들은 康熙年間에는 中國의 基督教化라는 目的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그 희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이미 中國의 基督教化라는 가능성도 사라진 乾隆年間에 宣教師들은 어떤 기대와 희망에서 滯在하였으며 乾隆帝는 어떤 認識下에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두 先帝와 비교하여 보려고 한다.

宣教師들의 報告書에 의하면 乾隆帝가 이들에게 어떤 처우를 하였는가에 관하여는 호의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乾隆年間은 基督教傳敎를 공식적으로 禁止한 시기였으므로 이들 在京, 또는 地方活動 宣教師를 종교活動者로 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乾隆의 측근에서 活動하였던 많은 宣教師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컸고 총애를 받았던 Castiglione 도 乾隆의 즉위초 蘇努一家에 대한 大赦免에서 天主教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을가 하는 기대를 한때 하였다. 그러나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올릴 수 있었던 上書도 별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宣教師들의 종교활동은 漢人이나 滿州人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받으면서 北京에서 기능인으로서 活動하게 되었다.

1737년의 박해에서 宣教師는 平生을 통하여 職務를 實行하는 것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1746年 福建박해에서는 天主教宣教師는 皇帝의

10) 拙稿, “康熙帝(在位 1662~1722): 그의 西學觀論評” 『歷史와 人間의 對應』, 서울, 한울, 1984, pp. 123~160 참조.

11) 拙稿, “雍正帝의 西學觀論評” 『梨花史學研究』 第13·14 合輯, 1983, pp. 125~137 참조.

禁令을 犯하고 布教에 종사하는 潛伏者라고 하였다.¹²⁾ 在京 活動者에 대한 職務란 기능인 전문인으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이며, 地方에서의 은밀한 傳教活動者는 潛伏者로 규정하고 있다.

當時 宣教師들의 報告書에서 그들의 皇帝에 대한 기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1750年 北京에서 보낸 한 선교사의 서간에 의하면……「비신자인 一君主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에게 物理 數學 天文學 그밖의 授業을 베풀기 위해 바다를 건너 갈 필요가 있는가」¹³⁾라고 하였으며 「(유럽에서는) 성직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皇帝를 만나는데, (中國에서는) 예술가 과학자의 자격으로 밖에 만나지 않는 것은 大變悲한 것이고 大變 屈辱의 인 것이 아닌가. 저들의 第1의 주요직무는 使徒的인 熱意가 저들에게 용기를 고무시키고, 저들로 하여금 과장되게 信仰의 防衛를 행하지 않고 이 종교에 반대하는 諸勅令을 폐지시킬뿐 아니라 이것에 호의적인 他 勅令을 내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¹⁴⁾라고 부정적이며, 사도로서의 역할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욱 1754年 P. Amiot 師가 de la Tour 에게 보낸 서간에서 선교사가 中國에 온 이래 乾隆帝처럼 저들의 봉사를 이용한 皇帝는 없다. 그러나 이 皇帝만큼 저들을 학대하고 또 그 전도하는 天主教에 대하여 가장 두려운 禁令을 발한 皇帝는 한 사람도 없다¹⁵⁾라고 지적하였다. 乾隆은 西洋의 技術이나 藝術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乾隆은 태어났을 때부터 宮廷에 선교사가 있었고, 그들이 어떤 경위로 궁정에서 일하는지 물랐기 때문에 그가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宮中奴隸같은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고 矢澤利彦은 말하고¹⁶⁾ 있다.

12) 박해에 관하여는 Ⅲ章 참조.

13) “1750年에 있어서 北京의 한 선교사의 書簡”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 6, 信仰編, 東京, 平凡社, 1974, p. 306.

14) 앞글, p. 308.

15) “中國潛在의 宣教師로 있는 Amiot 師가 同會의 de la Tour 師에 보낸 書簡(1754. 10. 17 北京에서)”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 3, 乾隆編, 東京, 平凡社, 1972, p. 268.

16) 앞책, viii.

한편 後藤末雄은 乾隆帝는 天文學者 美術工藝家로서의 선교사에게는 無上의 恩待를 주었다. 그래서 저들 중 어떤 사람은 清朝의 官吏에 임명되었고, Castiglione, Sichelbarth가 古稀에 이를 때에는 저들 外人畫家에 대하여 특히 성대한 祝宴을 궁중에서 개최하고 다수의 下賜品을 주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의 耶蘇會士에게는 더없이 冷談하였고 그 태도는 曖昧하였다. 특히 諸省에 잠복한 선교사에 대하여는 該地官憲에 비밀명령을 보내 저등에 엄벌을 加하였다. 실제 乾隆帝의 胸裡에는 선교사와 과학자 미술공예가와의 사이에 구획의 自線이 엄중하게 그어져 皇帝는 한점도 이 구획을 혼동하지 않았다¹⁷⁾고 乾隆의 선교사에 대한 태도가 엄격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그들 선교사들이 宗教人으로서의 活動을 거의 할 수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乾隆帝는 이들 宣教師를 宗教人으로는 인식하였는가,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모든 活動을 무시하고 묵살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當時 그의 측근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화가 Attiret나 Benoist와의 대담에서 乾隆의 태도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Attiret에게 大臣을 통하여 官職을 주려고 하였을 때 그는 「나는 修道士입니다. 그래서 修道士로서 現世의 一切의 榮譽를 버리겠습니다. 때문에 나는 皇帝의 厚情을 받는 것은 안됩니다. 내 신분으로 먼저 肝要한 의무를 무슨일이 있어도 태만하게 되면 안됩니다. 여하튼 陛下에게 이일을 충분히 이야기하였지만, 작하가 나의 餘生을 苦惱속에 두지 않게 하려면 職을 나에게 強制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모든 힘을 써 주실 것을 간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Castiglione 助修士나 欽天監의 役人으로 일하는 他유럽인들은 君과 같은 修道士가 아닌가」라고 하였을 때 Attiret는 「그들은 修道士입니다. 만약 저들이 役人으로 있다면 무리하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君도 무리하게 役人이 되면 되지 않겠나」¹⁸⁾ 하였는데 그는

17) 後藤末雄, 『中國思想のフランス西漸』 1, pp. 226~7.

18)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 3, 乾隆編, pp. 260~1.

다르다고 하였고, 명예롭고, 年金을 받을 수 있고, 皇帝도 本人도 만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Attiret 는 자신은 宗教人임을 먼저 주장하였다.

Panzi 가 스케치하는 동안 皇帝가 Benoist 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 北京에 東, 西兩堂이 있는 이유
- 中國에 오기까지 宣教師가 종사한 일
- 저들이 中國에 온 이유, 또 승려이외의 外國人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 언제 수도사가 되었는가, 승려가 되면 과학과 기술과를 수업하는가 아닌가,

등이었다. 이에 대해 Benoist 師는 教會堂이 南堂, 東堂, 西堂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中성에서의 위치에 따라 불리워지는 것이고, 선교사들은 中國에 오기 전에 유럽에서도 수도사였고, 수도사가 되는 것은 보통 16~18 才인데 때로는 더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다. 이職은 바야흐로 修道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他人을 완성시키려고 움직이는 것이다. 수도사가 되기 위하여는 유럽에서는 젊을때 文法 雄辯術 哲學 數學을 배운다. 그렇지만 이러한 一切의 學問을 언제 제공할 것인가는 2차적인 연구 대상이다. 첫번째 주된 目的은 宗教를 가르치고 惡德을 교정하고 風俗을 개선하는데 있다. 描畫 時計製造 기타 技藝를 배우는 것은 修道士가 되기 까지 그 어느 것인가를 아는 경우에 단순한 취미로 그것을 계속하는데 北京에 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것들을 새로운 학문으로 배우지는 않는다. 작하가 이 같은 諸種의 기술을 좋아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임무로 되면 當時에 오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을 연마한다. 만약 자신이 무엇인가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끼면 그것을 새로운 학문으로 배운다」¹⁹⁾라고 하였다. 이러한 Benoist 師와의 대화에서도 나타나듯이 乾隆은 이들 宣教師들이 宗教人으로 傳教에 대한 그 전제로서 技藝活動에

19)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5, 紀行編, pp. 354~5.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當時 技術活動의 종사는 天文曆法關係의 職, 畫家, 통역, 의사, 時計工 音樂家, 정원사, 측량, 지도제작자 等等 다양하였으나, 宣教師들은 그 나름의 많은 고충과 애로가 있었고 자신의 宗教生活은 가능하였지만 傳教는 사실상 어려웠으며 地方의 비밀 傳教者들과의 연결이나 本國과의 자유 서신왕래 역시 어려웠고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어떤 전문직 보다는 皇帝의 측근에서 그를 오래 접촉할 수 있었던 職은 宮中畫家들인 J. Castiglione를 선두로 J. Attiret, J. Sichelbarth, J. Panzi, J. Damascene 等이다. 이들은 活動에 많은 제한을 받으면서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기 보다는 乾隆이 원하는 대로 그의 취미에 맞추어야 하였다.

Castiglione는 聚瑞圖(1723年作), 百駿圖(1728年作) 等에서 그의 재능을 높히 평가 받았는데 乾隆즉위후 皇帝의 측근에서 초상화, 圓明園圖를 묘사하였는데 皇帝는 油繪나 西洋式 畫法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中國繪具를 썼고 皇帝의 비판과 수정을 받아야 했는데 그는 中國畫의 정신과 타협하여 동물의 털, 물고기 비늘, 葉脈도 모두 식물같이 상세히 묘사하였다. 그리고 乾隆의 尊像뿐 아니라 喬妃像을 비롯하여 초상화를 報筆하였다. 그는 말을 묘사 하는 妙를 살려 百駿圖, 十駿圖, 馬技圖, 春郊試馬圖 哈薩克貢馬圖같은 명화를 남겼는데 이런 것들은 乾隆의 개인적 기호와 부합하였다.

Attiret는 Castiglione의 뒤를 이어 親王, 同夫人의 畫像을 비롯하여 王侯 寵臣等的 초상화와 故事畫를 잘 그렸는데 乾隆은 山水, 花鳥와 樓臺亭閣을 강제로 그리게 하였으며 水墨畫를 학습하게 하였는데, 그는 中國人の 취미에 맞추어 새로운 畫風을 考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후 命에 따라 그는 皇帝의 측근에서 화가로서 활동하였는데 예술적 天才性을 발휘한다기 보다 皇帝가 원하는 戰勝圖라든가 초상화등을 그렸고 Attiret는 파르로 심신이 지쳐서 휴양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도 그림에 수정을 가할 것

을 명령받으면 補筆을 하였고, 皇帝의 눈에 안들면 다시 수정해야 했다. 皇帝는 상반신을 크게 묘사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여하튼 大尊像을 묘사한 賞으로 特旨를 가지고 四品官에 임명하고 食祿을 賜할 것을 고하였으나 前言하였듯이 그는 완강히 官祿을 사양하였다.²⁰⁾ Attiret는 Castiglione와 如意館에서 共同生活을 하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傳한 것을 보면 「나는 한 平房에 거주하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뜨거웠으며 屬民으로 보았다. 皇上的 恩遇의 隆盛함은 기타 建도사에 비하여 지나쳤다. 다만 종일 內廷에서 供奉하니 囚禁과 다름이 없었다. 주일에는 瞻禮하지만 역시 거의 祈禱할 틈도 없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자주 製肘받아 수시로 뜻을 발휘 할 수 없었다」²¹⁾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고충은 Panzi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中國人은 정면에서 그린 肖像畫를 좋아 하는데 그것은 얼굴의 兩側의 對照部分이 초상화에서는 같게 나타나고, 그 양부분 사이에 빛이 들어가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 그림자가 생기는 것 이외에는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데 皇帝는 政務가 多忙하기 때문에 Panzi는 陛下의 옛날 초상화를 주로 참고하고 年齡, 環境은 얼굴의 특징에 變化를 가져옴으로 수정하게 하고 측근의 第一太監이 보고 우선 검토하였다.

또 황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리는 동안 책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원하는 자세를 취하고 자기의 특징을 지적해 주기도 하였다. 皇帝는 필요한 이의의 影(影)을 묘사하지 않게 하였고 세밀한 정밀묘사 특히 의복묘사에 중점을 두게 하였다.²²⁾

20)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 3, 乾隆編, pp. 229~72.

21) 方豪, 『中國天主教史人物傳』 第3冊, 香港, 公教眞理學會, 1973, p. 90에서는 1743年 11月 1日 Attiret가 歐洲에 보낸 서간의 내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날 Attiret가 보낸 서한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中國의 醫學と技術—イエズス會士書簡集』의 第13書簡인 “中國皇帝에 奉仕라는 화가로 있는 예수회사 Attiret 助修士가 Assault 氏에 보낸 書簡”에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없다.

22)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 5, 紀行編, pp. 337~371 참조.

앞서 Castiglione, Attiret, Panzi 의 태도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들은 生活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화가로서도 자신의 예술성, 능력을 발휘하였던 것이 아니고 乾隆帝의 지시에 의하여 그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고용인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本人들의 종교생활만 겨우 유지할 수 있었지 他人의 傳敎라든지 地方活動者에 대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乾隆年間 그의 측근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던 Benoist 는 天文學 數學 地理學 物理學에 해박하였는데, 실제공사의 경험이 없던 분수제작을 圓明園의 정원의 중앙에 설계할 것을 명령받아 그 水力工事를 진행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었다. 그리고 여가를 이용하여 세계지도(坤輿全圖)를 만들고, 거기에 地球, 天球에 관하여, 大地와 他惑星의 운행에 관한 새로운 조직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 皇帝는 天文學 및 地理學에 대하여 오랜 시간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지도제작에서 Benoist 가 외국인이므로 용어풀이에서 잘못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였을 때 皇帝는 文章上의 잘못이 있더라도 Benoist 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欽天監의 보호자인 親王을 시켜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은 訂正하도록 하였다.²³⁾ 이같이 전문가가 아니라더라도 어명이 있을 경우 그 일을 수행하여야 하며 표현상 차이나 오류는 親王이나 中國側 官吏에 의하여 보충되었다.

결국 宣敎師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乾隆年間 宣敎師들의 來中이 계속되었던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도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그마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乾隆帝 역시 전문가으로 그들의 기술, 기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는데 대부분 天文 曆法 數學이나 外科醫, 音樂, 정원, 분수, 시계제작, glass 器제작, 繪師, 등 기술자등이었다.²⁴⁾ 그들 西洋人은 進京 效力을 원하면

23) ○“Papillon d'Auteroche 氏에게 보낸 Benoist 師의 書簡”(1767. 11. 16 北京에서)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 6, 信仰編, pp. 344~54 참조.

24) 『大清高宗純(乾隆)皇帝實錄』臺北 華文書局, 1964(以下『乾隆實錄』이라 칭) 卷 422, 4ab(17年 9月 辛酉), 436, 6a(18年 4月 戊子), 750, 8b-9a(30年 12月 辛亥), 962, 15a-16a(39年 7月 庚申), 1219, 23ab(49年 11月 辛

수도로 보내되, 간혹 歸國하기를 원하는 경우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고향에 서신을 왕래하는 경우 과거에는 Macao의 夷目 혹은 在省行商이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傳遞하였으나 이후는 금하고 公務에 속하면 걸차를 밟아 심사하여 행하도록 하였으며 70年代 후반 80年代에 가면 이러한 西洋人이 별로 없어 北京에 와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거절할 필요가 없다²⁵⁾고 하고 있다. 이러한 西洋人들에 대한 규제와 제한은 Macartney 使節을 통해 英國王에 내린 勅諭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 西洋各國은 天朝의 當差之人으로 오기를 원하면 그 來京을 허락하였고 다만 이미 온 후에는 天朝服色을 遵用하고 當內에서 安置하며 영원히 다시 本國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天朝定制이며…… 當差의 西洋人은 수도에 거주하며 本國에 돌아가지 못하고, 또 통신왕래를 하지 못하니 실로 無益한 일이다……」²⁶⁾고 하였다.

以上에서와 같이 宣教師들은 자신의 見解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완전 고용인으로 現實的 物質的인 대우는 받았을지 모르나 전문가로서의 입장이거나 역할도 분야에 따라서는 내세우지 못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康熙年間에는 주로 국가의 필요나 요구가 우선되었지만 乾隆年間에는 기존의 欽天監關係, 통역, 地圖作成을 제외한 藝術家(音樂, 美術) glass 器 제작자, 시계 분수제작자 정원사 의사 等職은 개인적인 취미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宣教師들에 대한 대우는 康熙年間은 일에 따라서, 人物에 따라서 파격적인 대우를 하였지만 乾隆年間에는 一般的으로 賜葬銀은 200兩, 좀 더 고려하면 大緞 10疋이었는데, Castigline는 300兩과 Hallerstein의 예에

已), 1432, 19b(58年 7月 13日)條.

『史料旬刊』 No. 14, 510ab, No. 24, 880b (Lo-Shu Fu, *A Documentary Chronicle of Sino-Western Relations*, Univ. of Arizona Press, 1966, 참조).

25) 『乾隆實錄』 卷 768, 4b-5b (31年 9甲戌), 962, 15a-16a(39年 7月 庚申), 1066, 21ab(43年 9月 甲午), 1130, 9b-10a(46年 5月 乙亥).

26) 앞책, 1435, 11b-15a(58年 8月 己卯).

따라 侍郎銜을 내렸다.²⁷⁾ 또 一般民人은 旗地를 사사로이 典買한 것은 法으로 禁하였는데 Castiglione의 경우는 旗地를 私典하였다. 이때 禮部는 저들이 이를 빌려 生計에 보태니 은혜로서 벌할 것을 면하게 해 달라고 上奏하였는데 乾隆은 예외적으로 이들을 관대하게 다스리고 다시 이와같은 일이 있으면 처벌하겠다고 하였다.²⁸⁾ 當時 旗地를 私典하였던 西洋人 宣教師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나, 일반적인 형태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乾隆治世 前期의 特例의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하튼 乾隆이 선교사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들 선교사들은 기대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였고 中國活動에 회의를 느끼면서도 체류하고, 또 來中하였다는 사실은 乾隆을 더 자만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을 고용인으로 더 심하게 다루게 하였다. 宣教師들 역시 下級役人으로 취급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기들의 지식이나 기술이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기의 존재이유 혹은 존재권을 주장하고 있다. 1754年 P. Amoit는 報告書에서 「在朝宣教師에 대하여 中國人の 行動에서 비판되지만 宣教師는 萬有學者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皇帝의 寶庫에 용도도 명칭도 알 수 없는 器機나 樂器 鑽石이나 2,3의 약품이 있었는데 저들은 선교사를 불러 그 용법이나 명칭을 배웠다. 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珍器奇什을 세계의 어느나라에서 운반하였는가, 皇帝御用의 佛人 또는 선교사라는 자격으로 뛰어난 異邦物에 관한 지식의 看板되는 것 같이 宣教師는 中國의 官人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고²⁹⁾ 하였다.

결국 乾隆은 宣教師를 宗教人으로서가 아닌 전문적인 下級고용인으로 이용하는 데 그쳤으나, 그들 宣教師들은 최소의 여건과 환경속에서 거의 바라 볼 수 없는 작은 가능성을 위하여 그들의 존재이유를 찾았기에 그들간

27) 黃伯歐, 『正教奉褒』 下, 133-138에 보면 구체적인 개인 개인별 사례가 기록되었다. 그리고 Castiglione나 Sichelbarth 같은 경우는 實錄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762. 9b, 10a 乾 31 6 戊申, 777. 28a 乾 32年 正月 癸巳)

28) 『乾隆實錄』 卷 378, 16ab (15年 12月 己卯).

29)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 3, 乾隆編, p. 270.

의 유대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지만 가능하였다고 본다.

Ⅲ. 天主教 認識

이미 雍正年間에도 박해를 받았던 天主教는 乾隆年間에도 계속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즉위 초, 1736年, 37年 이후 40年代를 거치면서 80年代에 이르기 까지 福建 江西 江蘇 陝西 山西等 여러지역에서 發生하였던 天主教 탄압에서 乾隆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 그의 태도가 全時代를 통하여 큰 變化는 없었다. 60여년의 치세중에 나타난 對天主教 정책 중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풀어보고, 宗教觀, 天主教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 天主教를 邪教로서 본 근거는 如何한지, 當時 白蓮教, 燃燈, 大乘教, 回教와 어떤 상관관계에서 보았는지와 正教로서 國家宗教란 어떤것 인지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乾隆의 天主教 禁壓을 先帝政策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이해한다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그가 즉위 초 敕諭에서 蘇努一家³⁰⁾를 석방하였다는 사실은 宣教師들에게 新帝에의 기대를 갖게 하였고 또한 禁令의 철회를 시도하게 하였으나 결과는 오히려 1736年(元年) 4月 1日 天主教信者에 대한 告訴狀을 결재하게 하였다.

1736年 박해³¹⁾는 의식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는데 訴狀에서 滿洲旗人中에 天主教를 信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國家에 災害를 가져 온다는 것을 암시하였고 政府는 그 訴狀에 대한 결론에서 天主教에 改宗한 사람을 조

30) 蘇努一家의 天主教信仰 문제는 拙稿, 『梨花史學研究』 13·14 合輯, pp. 134~136. 後藤末雄, 「雍正帝의 禁教事情とその眞因」, 『中國思想のフランス西漸』, 1, pp. 119~143.

矢澤利彦 「蘇努一家について」, 『和田博士古稀記念東洋史論叢』, 陳垣 「雍乾間奉天主教之宗室」 『輔仁學報』 3卷 2期 1932. 7等 참조.

31) 內容은 後藤末雄, 「乾隆帝と西洋文化」, 『中國思想のフランス西漸』 1, pp. 144~148.

○ “예수회의 宣教師 Parennin 師가 同會의 du Halde 師에 보낸 書簡”,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 3. 乾隆編, pp. 3~52 참조.

사하여 저들에게 棄敎를 권고하고 응하지 않는 사람은 엄벌에 처할 것, 科學 特히 天文學에 通曉해서 北京에 殘住하는 선교사가 滿人 및 滿洲旗人을 天主教에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禁令에 대하여 5月 3日 Castiglione가 上書를 올렸는데 皇帝는 「朕은 일개 天主教를 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滿洲旗人이 異敎를 信仰하는 것을 禁할 뿐이다」라고 하였으며 Castiglione를 향하여 安心하고 畫技를 계속하라고 하였다. 그후 「一般 滿洲人과 滿洲旗人과가 天主教를 믿는 것은 모두 합당치 않다. 政府는 天主教를 禁止하지 않는다. 天主教가 거짓됨이 있고 惡한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宣敎師가 天主教를 傳道하는 것은 그의 자유에 맡긴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1737年의 박해³²⁾는 棄兒의 구제를 위해 生兒에게 세례를 준 劉二等에 대한 처벌에서 비롯되었는데 刑部는 宣敎師가 皇帝에 上書한 사실에 격분하여 復答文을 闕下에 捧呈하였다. 乾隆帝는 그 復答文에 승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세례의식, 天主教人이라도 中國政府의 지배에 속한다는 것, 天主教는 僞敎로 그 폐해가 두렵다는 것 등이었다. 그후 宣敎師들에게 전달된 것은 會堂內에서 天主教를 信奉할 자유는 인정하지만, 政府는 漢人과 함께 滿洲旗人이 天主教를 信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宣敎師는 平生을 통하여 職務를 실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후 Castiglione에게 「朕은 당신들에게 天主教를 禁止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들이 天主教를 信奉하는 것은 自由다. 그러나 나의 국민은 天主教를 믿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한편 1746年의 박해³³⁾는 福建省 福寧府屬에서 Dominic會 傳敎에 대한

32) ○“1738년에 있어서 中國帝國의 宗教事情”,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3. 乾隆編, pp. 53~81.

後藤末雄, 앞책, pp. 148~151.

33) “1746년에 中國帝國에서 그리스도敎에 대하여 發生한 全般的 迫害에 관한 報告”,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3. 乾隆編 pp. 131~91. 에 매우 상세하게 전후 사정이 설명되고 있다.

後藤末雄, 앞책, pp. 152~159.

矢澤利彦, 「乾隆丙寅福安敎案考」, 『論集近代中國研究』.

地方官의 탄압이었다. 체포된 Pierre Sanz 司教, J. Royo, J. de Alcober, F. Serranoi, F. Diaz 師등을 심문하였으나 구체적인 죄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조사자였던 樊(范)氏의 재심요청에 따라 道 賴打 棒打 고문등으로 죄상이 예정되었다. 예배의 의식에서 中國의 전통에 어긋나는 문제들, 會堂을 세워 說教, 信者의 法名目錄을 보내 Rome 교황의 허가를 받는 것등이었다. 이 판결문이 北京에 보내진 후 乾隆帝는 6月 26日(陽 8. 12)諭를 내려 現在 福建 福寧府屬에 西洋人이 天主教를 倡行하고 있는데 男女를 招致하고 예배 誦經하며 또 番民을 誘騙 愚氓하고 會長을 設립하고 教堂을 創建하며 때때로 不法으로 그 左道를 가지고 人心을 煽惑시키니 風俗의 害가 甚히 크다. 天主教를 嚴禁한지 오래인데 福建이 이와 같으니 各省에 潛散할지 의혹이 가며 역시 알수 없으므로 各省의 督撫等에게 諭를 전하니 비밀리에 해당 지방관들에게 密飭해서 엄하게 찾고 뽑아내라…… 그리고 그 西洋人은 모두 廣東으로 보내 기한을 정해 搭船 回國시켜 이러한 일이 더 없도록 하라³⁴⁾고 하였다. 그 결과 P. Sanz는 斬罪, 그밖에 4名은 定例의 執行期를 기다려 斬刑, 中國人은 죄상에 따라 絞刑 答刑等을 받았다. 이어서 박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해 8月에는 山東의 德州所屬 邊臨鎮等地에서 西洋宣教師들에게 入教를 권유받았던 中國人을 잡아 심문하였더니 天主圖像 經卷 念珠等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리를 이루어 情事함은 없었다. 그러나 후 雲南 邪教의 逆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³⁵⁾

그후 1747年 3月 江西省 高安 萬安 鄱陽 浮梁等縣에서 胡柳 喻元捷 沈鳴鳳 鄒雲章等 50여인이 잡혔는데 선교사는 山陝活動者인 Urbanus Scha-

34) 『乾隆實錄』, 卷 269, 24ab (11年 6月 庚寅), 275, 19a-21a (11年 9月 壬戌) 福寧府 박해는 福建巡撫 周學建의 단호한 처치요구로 斬首刑을 받았으며, 선교사들은 皇帝에의 직접 上奏도 어려워 졌다. 한편 1748年 3月에는 呂宋의 夷商이 피살된 P. Sanz의 骨殖과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乾隆實錄』 卷 310, 3b-4a 13年 3月 乙酉朔)

35) 알책, 卷 273, 34a (11年 8月 癸巳).

mberger(獨人, O.F.M. 漢名李世輔)였다.³⁶⁾ 4月 이에 대한 諭에서 一面 山陝 撫臣에게, 一面 禮部에 移咨하여 그 내력을 조사하여 밝히고 審明한 후를 기다려 廣東에 遞解하여 本國에 附回시켜야 된다³⁷⁾고 하였다.

1748年 江蘇에서는 西洋人 Antoine J. Henriquez (Lusitania人 漢名王安多尼) 등이 內地民人을 入敎토록 煽惑하고, 姦淫토록 권장했다는 件에 대하여 署江蘇巡撫 安寧에 내린 諭에서 Henriquez와 T. Attimis(伊人, 談方濟) 2犯은 律에 비추어 絞監候해야 한다. 外夷 奸棍이 內地에 잠입하여 愚民을 誑誘하고 不法을 恣行하면 元래는 엄하게 징계해야 된다. 다만 이 사람들이 犯하였을 때 典刑으로 明正하더라도 돌려서 外夷 民人에게 이어 질 것이므로 더욱 증대될 것이다. 만약 오래 囹圄에 監禁하면 또 滋事가 두렵고, 瘦斃하게 하지 않은 즉 聲色이 不動하고, 제거해야 할 患이 숨겨진다. 종전의 福建 自多祿(Pierre Sanz)一案에 의하여 首犯은 正法으로 다스리는 외에 나머지는 斬監候의 犯에 의하여 이제 이와 같이 辦理하라³⁸⁾고 하였다.

그러나 10月 24日(陽 12. 14) 刑部가 議奏한 바에 의하면 앞서의 Henriquez 등은 江蘇 昭文縣에서 敎를 행하면서 江蘇 安徽 浙江 3省을 왕래하면서 男婦를 현혹하고 사건을 일으켰으므로 그들은 化外人犯罪律에 비추어 絞刑, 권장했던 昭文縣民 唐德光, 常熟縣民婦 沈陶氏는 左道惑人爲從律에 비추어 邊外로 보내는 民으로 삼고, 聽從之敎 混稱會長의 尤元長 등은 違制律에 비추어 杖枷하고 附敎載送의 唐興周 등은 杖笞³⁹⁾한다는 것 등이었다.

1750年代에 이르러 52年에 湖北 襄陽縣에서 天主教徒의 番字書札 等을 둘러싸고 書札 中에 不法情弊함이 있는지, 국내사정을 밖으로 건하는 것인

36) 앞책, 卷 287, 18b-19a (12年 3月 己未).

37) 앞책, 卷 288, 31b-32a (12年 4月 癸酉).

38) 앞책, 卷 320, 12b-14a (13年 閏 7月 己未), 方豪, 앞책, 第3冊, pp. 111~121.

39) 앞책, 卷 327, 17a-18a (13年 10月 乙巳).

지, 국내 반란자들과 연결을 가지는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⁴⁰⁾ 또 1755년에는 軍機大臣等에 내린 上諭⁴¹⁾(兩江總督 鄂容泰의 奏에 대한)에서는 拏獲된 J. Aranjo(葡人 S.J. 張若瑟)를 前旨에 비추어 罪대히 석방하여 Macao 로 보내 安插케 하라고 하였는데 鄂容安이 監禁하여 이미 1年을 羈獄했고, 現在 江省에 이러한 煽誘行教의 일이 없으니 Macao 로 보내 거 주케 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實錄』등의 선택된 자료만으로 當時의 天主教 박해의 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하다. 그러나 예수회서간집 역시 전교활동의 보다 큰 원조를 지원받으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서술에 객관성이 부족하며 문제점을 내포하고도 있다.

또 當時의 全般的인 對外關係에서 政府 또는 皇帝의 견해를 파악하여 그 가운데서 이해되어야 했고, 또 時期에 따라, 地域에 따라, 地方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1760年代에는 67年 5月 江西 廬陵縣에서 전도할 선교사를 구하려 廣東에 갔던 蔣日遠, 劉芳名, 西洋人 Joachim J.M.Y. Rosa(安當), Sebastian de Medina(尼都), 船戶 李嶺南等 5名이 拏獲되었는데 張의 申狀에서 鈔書 6本, 鈔單 2紙가 搜出되었다. 조사한 결과 天主教 經卷이었다. 그래서 西洋宣教師를 勾引한 吳均尙은 伊黎로 보내 種地兵丁에 주어 奴로 삼고, Rosa 와 Medina 는 外夷로 무지하였다는 점에서 永遠한 監禁은 면하고 本國으로 보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 蔣日遠等 3犯의 中國人은 黑龍江等에 發遣하여 披甲人에 주어 奴로 삼게 하였다.⁴²⁾

40) 알책, 卷 440, 27b-28a (18年 5月 巳亥) 襄陽(湖北) 一帶은 1745年 8月 22日 예수회 선교사 Louis du Gad 師가 同會의 Pierre Foureau (吳君)에 보낸 書簡에 의하면 河南省 南陽에서 湖北省 襄陽 安陸 沔陽에 이르기 까지 신자를 순회여행을 하면서 관리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지역이 광범하고 또 상당히 파급되었음을 의미한다.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乾隆編, pp. 108~121 참조)

41) 알책, 卷 491, 18a-19a (20年 6月 丙寅).

42) 알책, 卷 793, 7ab (32年 8月 辛巳), 19b 20a (8月 丁亥), 卷 800, 15b-17a (12月 乙亥), 方豪, 알책 第3冊, pp. 180~188.

그리고 Jean. F. Gleyo(佛人 外國宣教會)가 四川省에서 겪었던 迫害의 報告는 1769年 5月 30日부터 1777年 6月 29日까지 예수회서간집⁴³⁾에 매우 상세히 전하고 있는데 1769年 永川縣에서 전교도 증 체포되었고 그후 투옥되어 많은 고초를 겪었으며 Rocha의 노력으로 석방되었다.

1770년에는 守備로서 종전에 天主教에서 이미 나왔다가 다시 入教한 承德을 革職하고 旗籍에서 銷去하고 伊犁로 보내 厄魯特에게 賞給하여 奴로 삼게 하였고⁴⁴⁾ 1772년에는 貴州 婺川縣에서 天主教徒 蔣登庸一家에 대한 탄압⁴⁵⁾과 北京에서 F. Bourgeois(로렌人 S.J. 晁俊秀)는 四川의 蔚州, 宣化府等地的 박해⁴⁶⁾를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1780年代 후반기에 이르러 天主教 탄압은 그 규모와 범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82년에 直隸 寶坻縣에서 예배, 天主圖像 및 經卷 樂器等物의 매매로 左道惑人爲從例에 비추어 邊衛에 보내 軍에 충당시키고 있다.⁴⁷⁾ 또 그 밖에 처벌도 있지만 17, 8世紀 中國에서 일어났던 天主教탄압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1784年, 85年 陝西省 天主教徒로부터 비밀리에 초청을 받은 이태리 Francisco 會士 G. Sassari等 네 宣教師가 信者에 인도되어 水路로 廣東을 출발하여 輿地로 향하다가 湖北省에서 체포됨으로써 發端된다.⁴⁸⁾

43) “外國宣教會의 宣教師 Gleyo 師가 中國의 四川省에서 遭遇된 박해보고의 발제”, 『中國의 布教と 迫害』 pp. 338~379 참조.

44) 『乾隆實錄』, 卷 858, 15b, (35年 5月 甲申).

45) 앞책, 卷 905, 28a-30a, (37年 3月 甲子).

46) “北京의 宣教師 Bourgeois 師의 書簡”(1773. 9. 18 北京에서) 『中國의 布教と 迫害』, pp. 284~98.

47) 『乾隆實錄』, 卷 1150, 19ab (47年 1月 辛巳).

48) 이 乾隆 49, 50年(1784-5年)의 박해에 관하여는 『乾隆實錄』에 관련된 地方官들의 報告書들과 그에 대한 上諭로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文獻叢編』上, 臺北, 國風出版社, 1964, pp. 443~65에 「天主教流傳中國史料」에서 軍機處存檔의 내용으로 關係官들의 奏摺를 소개하고 있다.

또 B.H. Willeke, *Imperial Government and Catholic Missions in China during the years 1784-85* (N.Y., 1948), 矢澤利彦 “乾隆 49, 50年の天主教 禁壓” 『埼玉大學紀要』(社會科學編卷 7.), 方豪, 앞책 第3冊, pp. 134~149. 참조.

그 전모는 矢澤의 論考나 Willeke의 저술에서 상세히 다루었을 것이므로 다만 本稿에서는 앞서의 다른 박해에서와 같이 天主教가 어떻게 취급되었으며, 그 관련인들의 처벌, 지역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만을 검토하려고 한다.

1784年 9月 2日 軍機大臣等에 내린 諭(湖北巡撫 永安의 奏에 대한)에서 天主教徒인 劉繪川 劉十七을 拏獲하였는데 그들 집에서 經卷 佛像等이 搜出되었고, 대신 送信했던 劉威傳을 잡았는데 地方官에 보내 審辦하게 하였다. 그런데 지방관은 天主教가 지금까지 經卷, 佛像 等を 가지고 있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혹 外省의 무식한 부리에 연결되어 사사롭게 조작되면 역시 조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拏獲된 西洋人 4名은 湖廣總督 特成額에게 취조한 후에 수도로 보내 審辦하게 하고 西洋經卷 및 佛像의 그림 등은 수도로 보내 呈覽케 하였다. 그러면서 西洋人이 西安에서 傳敎하려는 것이 누구와 연결되는지 체포되지 않은 張永信이나 劉朝和 等を 빨리 체포함으로써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⁴⁹⁾고 하였다.

그후 이들 西洋人 선교사를 취조하였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 廣東巡撫에게 飛咨하여 통역관 柯成, 陳大祐가 와서 취조하게 되었고, 그 결과 密咨를 陝西에 보내 焦姓, 秦姓(西洋人이 西安에 가서 의탁할 대상)을 조사시켜 焦振綱과, 子 明貴, 秦祿(山西 祁縣人) 等を 잡아 심문하였더니 天主經 一本, 漢字書信 4封, 洋字書信 10封이 나왔다. 특히 洋字書信이 있었음은 필경 西安에 西洋人이 한 사람 이상 있었을 것이고, 하물며 西洋人이 전교하려 하였다면 廣東 부근의 廣西 福建 湖南 江西等省에 분산될 수도 있는데 먼 西安에 간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 特成額은 湖南에도 飛札을 보냈다. 이 사건은 西安 天主教徒들(杜興智, 秦祿 焦明貴, 曾學孔等)이 天主教 재건을 시도하였던 것이었다.⁵⁰⁾ 이어서 陝西 渭南縣屬 油河川等

49) 『乾隆實錄』卷 1214, 4ab (49年 9月 甲寅).

50) 張永信은 湖廣人이었고, 福建 龍溪縣人 蔡伯多祿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 주변 인물, 연결관계가 밝혀졌다.

處 徐宗福, 韓奉材의 집에서 西洋人 Francesco Magni(伊人呢嗎方濟各: 山西代牧)과 馬諾(Macao人)이 체포되었는데, 심문 결과 Magni는 陝西에서 23년간 活動하였고 洋字經本 畫像 書信等을 가지고 있었으며 張多明我(陝西 渭南縣人)가 체포되었다. 또 陝西 漢中府, 山西 洪洞縣 潞安府 大同府 및 山東 湖廣 直隸等省에서 天主教를 學習하였고 西洋人은 그곳에서 傳敎하면서 Rome 교황청(羅馬當家) 寄信內에 언급하기를 현재 10名을 파견하여 山西·陝西·湖廣·山東·直隸等에 보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各省에 分咨하여 緝拏하게 하고 天主教가 이같이 확산되고 Magni처럼 20여년이나 된 것에 대하여, 面貌 語言이 다른데 그렇게 오래 활동할 수 있었는지 西洋人의 수색과 天主教徒의 체포를 全土에 확대시켰다.⁵¹⁾

그후 山西 晋에서 安多尼(81年以後 活動), 王亞各比 山東에서 吧哞哩亞 噠, 格雷, 西洋諾 등이, 四川에서 J.D. de Saint-Martin(馮若望) Dufresse(李多林)이 체포 됨으로써 84-85년에 걸쳐 陝西 山西로부터 江西 兩廣 閩浙 廣西 貴州 山東 四川 直隸 安徽等 地域이 그 영향을 받았으며 西洋人 宣敎師들은 北京에 보내어졌고 대부분 永久監禁하였다. 그 중 獄中死亡者를 제외하고는 후일 석방되어 嘉慶初까지 北京에서 技藝活動者로 남은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 本國으로 보내졌다. 한편 中國人으로 神甫를 칭한자는 官職을 받은 것과 다를 것 없으니 그 죄를 중하게 다스려야 하고, 그 재물에 依助하여 利를 취한 자는 審明後 伊掣에 보내 厄魯特의 奴로 삼고, 그들에게서 番銀을 받은 자, 그 原籍 家産은 다 조사하여 官에 넣고, 傳敎者를 인도한 사람도 伊掣에 보내 厄魯特의 노비로 삼게 했다. 그리고 祖父가 믿었기 때문에 계속 신봉하는 자는 悛改하게 하고 經卷을 呈出하여 銷燬한 후 深究함이 없으면 짐차로 그 根株를 다하게 된다고 처벌을 규정

앞책 卷 1214, 11b-13a (49年 9月 己未), 19a-20b (9月 丙寅), 卷 1215, 7a-8a (9月 乙亥), 卷 1216, 18b-19a (10月 辛卯), 33a-35a (10月 丙申), 卷 1217, 4ab, (10月 辛丑), 卷 1218, 5ab (11月 癸丑).

51) 앞책, 卷 1218, 20a-22a (49年 11月 壬戌).

하고 있다.⁵²⁾

이미 雍正以後 강력한 禁教政策을 써 왔고, 乾隆의 즉위 후에도 계속되었으나, 84年의 이 박해는 파급된 지역으로나 관련 宣教師나, 인도자, 신자(특히 선조대로 부터)로도 그 범위는 매우 컸다. 그 이유는 周知한 바 陝甘의 回教徒와의 연결을 우려하였다고 하는데, 回教徒의 亂을 진압하였던 福康安, 畢沅의 上奏에서 「근래 듣기에 西洋人과 回人은 본래 一教에 속하는데 今年 甘肅省의 逆回의 滋事가 있었다. 西洋人으로 앞서 陝西에 가서 傳教한 자는 또 그 기회를 適逢하였다. 또 陝甘 兩省은 民과 回가 雜處하니 勾結하여 情事를 煽惑할 것이 두렵다」⁵³⁾고 하고 있다. 福康安等의 回教徒와의 연결 우려는 그후 여러 地方官들에 의하여 거론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이 탄압의 주요 이유임을 알 수 있다. 그 후에도 다소의 천주교 박해는 있었지만 1784~85年の 사건만큼 17·18世紀를 뒤흔들었던 사건은 없었다.

60여년의 乾隆治世에서 宣教師들은 天主教를 전교할 대상으로 滿洲旗人 滿洲人 漢人은 제외된다고 하였다. 동시에 天主教 전도는 자유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1740年代의 福建을 중심으로 하는 Dominicans, 1780年代의 Franciscans 및 Paris 外邦宣教會, Lazarists 등의 活動에서 이들 宣教師에 의한 天主教 전교는 명맥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絞監侯, 邊防의 노비, 杖笞, 永遠監禁, 강제歸國等 전교자, 신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구체적인 자료를 후세에 전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伊犁나 庫爾喀 邊地에 奴婢로 간 신자들의 관계기록이 있다면 좀 더 상세한 결과를 파파악 수도 있을 것이다.

52) 앞책, 卷 1219, 2b-3a (49年 11月 戊辰), 3b-4a (11月 庚午), 5a-6a (11月 辛未), 卷 1224, 28b-29b (50年 2月 辛卯), 卷 1225, 1a-2a (2月 丙申), 4a-5a (2月 庚子), 『文獻叢編』上, pp. 443-65 參照.

53) 『乾隆實錄』卷 1221, 3a-4a (49年 12月 戊戌), 『文獻叢編』上, pp. 443, 444, 446.

乾隆의 宗教觀은 如何하였으며, 天主教 이해는 어떠하였는가. 康熙帝가 유교적 교양을 갖추고 佛敎 道敎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雍正帝는 佛敎 道敎에 심취하였으며, 滿洲人, 中國人, 蒙古人, 西洋人은 각각 그들의 고유 의식에 따라 天을 숭배해야 된다고 하였다.

乾隆은 政治에 있어서는 儒敎主義를 채택하여 曲阜의 孔子廟를 수차 참배하였고 文殊菩薩 垂跡의 名山인 山西의 五臺山왕래, 蒙古 西域에 대한 회유정책으로 喇嘛廟의 造營等 諸宗教에 대하여 완화적인 면을 보였다. 그러나 그 자신 어떤 宗教觀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분명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當時, 活動하고 있는 諸宗教를 어느 것도 수용하거나 크게 배척하지 않은 現實主義者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한편 乾隆의 天主教 理解는 어떠하였는가. 康熙帝는 補儒, 合儒의 측면에서 다소 天主教에 대한 경칭의 태도를 가졌고, 바로 그점이 때로는 오해와 기대를 선교사들에게 주기도 하였다. 反面 雍正은 엄격하게 天主教를 邪敎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다. 乾隆帝 역시 天主教에 결코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先帝와 같이 宣敎師들의 報告書에 乾隆의 의견이 충분히 나타나 있지도 않다. 측근의 Castiglione 나 Benoist 에 의하여 유도되어지는 하였으나, 이 시기 宣敎師들의 발언권은 康熙年間에 비하여 매우 미약하였고 그들의 역할이 국가적인 필요성 보다는 개인적 취미, 관심사였기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乾隆은 초기에 天主教를 異敎로서 거뒀음이 있고 악한 것이라고는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746年 박해 때에 Castiglione 는 乾隆帝에게 「神은 全能하시고 願하는 것을 들어 주신다. 또 원하는 것을 듣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다. 우리는 언제나 神의 의지에 따른다」고 하였다. 乾隆이 天主教徒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Castiglione 는 「바른 생활을 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不正한 生活을 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 한다. 正, 不正은 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神의 全能의 힘에 의하여 처녀 마리아의 예수인태와, 神은 육체와

영혼을 자기 신성에 歸一시키고 죄에 빠진 인류를 지옥에서 구하는데 이 이야기는 宗教書에 설명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때 乾隆은 조소하였으며, 漢譯의 宗教書類에 그리스도의 化身의 신비를 說明하고 있으니 틀이 있던 보라고 하였을 때 乾隆은 매우 불쾌스럽게 답하였다.⁵⁴⁾ 한편 後藤末雄은 宜教師는 人間의 육체는 死滅하지만 영혼은 영구히 生存하고 信者의 영혼은 神에 의하여 구제되어 天國에 올라가 無上無限한 淸福을 얻는다고 하였으며, 소위 篤信者는 평온하게 사형을 받고 기쁘게 殉教의 피를 흘린다.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에게 宗教를 엄금하여도 信者는 教法의 要理를 믿고 國法을 犯한다. 따라서 教法 앞에서는 政治가 힘을 가지지 않는다. 乾隆帝는 바로 이점에서 내세 신앙의 天主教의 폐해를 인정하고 있다⁵⁵⁾고 하였다. 이렇게 異敎로서害는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그후 僞敎로서 그 폐해가 두렵다. 左道로서 人心을 현혹시키고 風俗에 해가 된 다라고 하면서 「天主教」로 표현하였다. 邪敎라고 하면 道德이나 社會制度에 어긋나며 雍正의 말대로 道義를 진작시킨다는 명의 하에 반항적 정신을 고취시킨다⁵⁶⁾는 것인데, 이를 天主教가 다른 敎團, 비밀결사와 같이 정 부전복의 우려까지 포함하고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邪敎는 백성을 현혹시키며, 그 폐해가 가장 큰 것은 世道 人心의 害가 되는 것이다. 人心을 바로 잡으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邪說을 그치게 해야 한다. 邪說의 가장 쉬운 것은 鄉愚를 煽惑시키는 것이고…… 만연하면 날로 커져 크게는 國敎의 害가 된다⁵⁷⁾고 하였으며 「蠱惑衆聽 流毒無窮」, 「其所有逆書邪說 蠱惑人心(招徒惑衆, 妖言惑衆)」, 「惑造作妖書 妖言惑衆」, 「惑抄傳簡帖, 轉相煽惑 流毒無窮」, 「均合依妄布邪言 煽惑人心」⁵⁸⁾ 등의 표현으로 거론하였다. 1746年 福建박해에서 地方官이 天主教라고

54)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3, 乾隆編, pp. 173-75.

55) 後藤末雄, 앞책, 1, pp. 224-225.

56) 拙稿, 梨花史學研究, 13, 14 合輯, pp. 128-29.

57) 『乾隆實錄』卷 171, 32b-33a (7年 7月 丙戌).

58) 앞책, 11年 6月 丁丑, 7月 癸亥, 9月 庚戌, 23年 5月 甲寅條等.

한 근거는 父子의 관계를 끊고, 그 嗜欲을 끊고 종신토록 國王을 위해 行教하는데 심하면 忘身 觸法할 정도이며, 한번 入教하면 종신토록 개종하지 않고, 男女의 情欲을 끊고 이교에 귀의한 처녀는(수녀) 종신 결혼하지 않고, 幻術 詭行이 있으며 番冊에 番王의 姓名을 보고하고, 귀교자는 番名을 준다⁵⁹⁾고 하였다. 그밖에 세례는 사제가 악마를 退散시키기 위해 男性에게는 입에, 女性에게는 簞를 사용하고, 受洗者의 顔에 息을 고치시키는 의식이며, 聖體拜領, 終油의 의식에서 邪教性을 지적하고 있다.

結局 乾隆은 天主教의 의식이나, 종교로서의 성격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선교사들을 일부 조정에서 고용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하여 다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말하듯 邪教로서 반항적 정신을 고취시킨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만 地方에 따라 심한 박해가 일어날 때 그 내용을 인준하고, 他地域의 비밀결사나 宗教반란과의 연결, 또는 그로 인하여 天主教徒가 적극 反정부세력과 합세하지 않을까를 우려하였으며 이들 자체적으로 反亂을 야기시킬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宗教性이 강하여 國家보다는 종교를 더 택할 가능성을 예상하여 우려하였던 것 같다. 따라서 다른 宗教集團, 비밀결사와의 연결이 이루어 질 경우 反亂에의 확대를 우려하였다. 特히 1740年代의 福建박해에서는 白蓮教, 燃燈教 大乘教等과, 60~70年代에는 白蓮教와, 84年の 박해에서는 回教徒와의 연제의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白蓮教와의 연결은 1746年 박해 때에는 宣教師의 몸을 수색하면서 數珠가 발견되었는데, 兵士中 한 사람이 이 數珠는 白蓮教徒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言及하였다.⁶⁰⁾ 그리고 四川에서 60年代末 Gleyo가 겪었던 박해때에 선교사들은 天主教가 白蓮教와 같이 취급된다고 하면서 선교사들

59) 앞책, 卷 275, 19a-29a (11年 9月 壬戌).

60)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 3, 乾隆編, pp. 156-7.

이 사용하는 禮拜用具를 보고 白蓮教徒라고 생각⁶¹⁾하였다. 天主教가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된 이유는 의례용품에서 白蓮教徒가 사용하는 물품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 유사성을 말한 兵士나 官吏가 白蓮教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지식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으며 막연히,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지 敎理나 의식이나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은 아니고, 다만 白蓮教의 反政府的 行동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天主教를 유사하게 인식한 것이다.

이단적인 佛敎로서 然燈, 大乘敎는 부전박해 때에 西洋本國의 敎인 天主教와는 다르며, 급히 범으로서 다스리면 綏遠의 뜻에 어긋난다⁶²⁾고 福建 박해에서 말하는데 이 然燈, 大乘敎와는 다르다는 말의 이면에는 그때까지는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다가 다르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佛敎의 然燈, 大乘敎를 다르다고 하였는지 알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볼때 사실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으나 하는 인상이다.

回敎와의 관계는 84年 陝甘박해에서 國亂을 진압하였던 福康安이 西洋人은 回人和 본래 一敎에 속하는데 甘肅의 逆回가 西洋人 건도자들과 연결되어 반란이 확대되지 않을까⁶³⁾하는 우려에서 言及된 것이다. 回敎와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西洋人과 回인이 一敎에 속한다고 하였는지 구체적인 것은 알수 없지만 대개 西方에서 온 宗教라는 의미가 작용한 것 같고 福康安의 의도적 발언과 地域的인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이렇듯 白蓮教 回敎等과 天主教의 연관은 前者는 의례용품에서, 後者는 地域的인 反亂의 야기라는 문제에서 즉 매우 초보적 이해에서 言及하였지 결코 이들 宗教간의 교리, 의식에서 연결된 것이 아니었으며, 결국은 反亂세력으로서의 성장을 우려하였고 그 傳敎를 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61) 『中國の布敎と迫害』, pp. 343~46.

62) 『乾隆實錄』卷 269, 24ab (11年 6月 庚寅) 卷 271, 2b-3a (11年 7月 庚戌).

63) 註 48 참조.

乾隆의 天主教이해, 박해, 邪教라는 모든 문제는 天主教가 독자적으로 反亂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이해하지 않았으나, 他宗教, 비밀결사와 야합할 경우 反亂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地方官의 天主教 탄압을 방관, 동조하면서 그 勢力의 성장을 견제하였다고 하겠다.

Ⅳ. 西學理解 및 活用

P.M. Cibot는 乾隆帝는 天文學 繪畫 科學技術의 경우는 中國人과 西洋人을 비교하면 中國人은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⁶⁴⁾고 말하였다. 이렇듯 乾隆의 西洋學問에의 인식은 그 나름의 심도를 지니고 있다. 그는 天主教인 식이라는 點에서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그의 개인적 취미,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西洋기술에의 理解와 活用은 매우 적극적이었다.⁶⁵⁾

특히 Benoist의 書簡들에 의하면 그의 西學에의 관심과 그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乾隆帝와 Benoist 간에 問答體의 글인 소위 “Benoist師의 第二書簡”에서 宣教師파견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우수한 조각가의 출신지, 彫版의 下繪가 보낸후 4,5年 이상 경과하는 이유, 유럽에서 得勝圖 戰勝圖에 관한 것, 政治的인 諸問題로 諸國間의 권위분쟁, 國力, 왕위계승(Russia의 Ecatherina II) 戰爭의 目的, 戰鬥法 戰略等, 유럽諸國의 數, 諸君主가 동원하는 군대의 數, 佛·露關係, Moscow國(Russia의 지칭)의 군대에도 Alaunpaya王朝(Burma)의 군대에도 유럽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나라 사람인지, 유럽諸國의 풍속 및 습관, 地圖製作法, Batavia의 和蘭人통치, 和蘭의 정치체제(本國), 呂宋에는 어느 유럽인이 있는지, 噶喇

64) ○“宣教師 Cibot師가 D師에 보낸 書簡”(1771. 11. 3 北京에서) 『中國의 布教と迫害』 p. 269.

65) 1775年 正月 14日(2.13) 宣武門內의 天主堂에 화재가 발생하여 康熙帝가 내린 御筆匾額 3種이 소실되어 d'Espinha, A. Rodriguez 등이 어떤 조처를 받을지 매우 두려워 하였는데 乾隆은 康熙때의 예에 따라 1萬兩을 피사하여 복원시켰으며 새로 “萬有眞原”(중건 “萬有眞元”)이라는 匾額을 내렸다. (黃伯祿, 안책 下. 137a) 이는 그의 적극적인 취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吧의 和蘭人처럼 이땅에 이주하였는지,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新 Ispania, 新 Holland, 新 France 等 이런 新國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럽의 모든 군주는 누구나 自國地圖를 만들고 상호 교환하는지, 鎖國에 대하여, 日本의 鎖國等等을 言及하였다. 또 水路地圖, 航海法, 海上에서 針路를 測定하는 法, 所在地의 위치를 아는 方法, 선박의 크기, 佛蘭西선박이 中國에 운반하는 물품, 中國에서 수출하는 물품, 유태계조법, 中國滞在 유럽인에 대하여(중중에 25名, 그중 12명은 교회에 거주, 11명은 佛人이라고 답변) 이태리와 佛蘭西의 동맹관계, 이태리출신 화가, da Rocha(傳作霖)의 지도작성에 대하여, 欽天監 종사자들에 대하여, 天文 地動說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以上에서 乾隆은 유럽의 정치, 군사적 균형등에도 깊은 관심이 있음을 알수 있으며 特히 러시아, 西洋國家들의 東洋活動의 성격과 배경 및 學問等에 대하여 인식하고자 하였음을 알수 있는데 宗教에 관하여는 거의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의 Benoist의 書簡에서 乾隆은 망원경, 排氣機, 회화, 地動說, 星辰觀測法, 유럽의 酒, 포도주 等에 대한 문의하고 있다.⁶⁶⁾ 이 모든 질문들의 乾隆의 西洋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다 반영시키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으나 18世紀 中國의 對外關係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폐쇄성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의외로 乾隆의 유럽정치, 군사 외교에의 관심은 깊었고, 제한적인 鎖國政策은 實利的인 바탕에서 中華를 내세우면서 취해진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乾隆이 취했던 西學의 구체적 내용과 그 活用에서 그의 西學인식의 정도와 성격을 가름하고자 한다. 康熙帝는 天文 曆法, 그 기초로서 數學, 製砲, 醫藥等 주로 科學技術을 개인의 취미라기 보다는 國家的인 요구에 부응하여 채용하였고, 雍正帝는 欽天監에 종전의 西洋曆을 유지하는 상태로만 지켜나갔지 거의 무관심하였다. 乾隆의 경우 天文 曆法, 地動說 星辰의 관측법, 망원경, 排氣機, 地圖 繪畫等에 관한 것이었다.

Benoist는 皇帝의 天體現象에 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많은 질문을 유

66) 『中國の布教と迫害』 pp. 299~320.

도하였는데 太陽이 도는 대신에 太陽은 우주의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지구나 惑星이 돌고 있다고 說明하였다. Benoist 는 잔잔한 바다위를 달리는 一艘의 船과 비교하여 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정지되어 있는 것 처럼 느끼는데 山, 海岸 이어서 기타의 것이 멀어져 가는 기분이 든다 라고 했고 乾隆은 「朕은 이것을 특히 朕의 座船의 실내 혹은 수레안에서 자신이 관찰하였다. 이 일은 朕이 잠깐 일에 열중 했을 때 승강구의 glass, 또는 窓에 눈을 돌릴 때 한층 똑똑하게 느껴진다. 그때 朕은 자신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朕으로 부터 멀었다가 朕에게 가까워 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몇가지 例를 더 說明하여 乾隆帝는 地球의 자전을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地動說을 긍정하게 되었다.⁶⁷⁾

乾隆은 星辰의 觀測法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하였고 望遠鏡의 가치와 용도를 Benoist 로 부터 說明듣고 照準하여 宮殿의 屋根에 맞추고⁶⁸⁾ 즐겼으며, 宦官에게 배우게 하였다. 그러나 Benoist 의 第三書簡에 의하면 乾隆의 望遠鏡에의 관심은 상당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 乾隆은 망원경의 하부에 있는 반사경의 구멍이, 이 반사경에 반사되는 광선의 분량을 감소시킨다고 하면서 이 구멍에 대치되는 위치에 다른 小반사경의 물체의 一部를 은폐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두반사경의 위치를 바꾸어 불편을 改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Benoist 는 유럽 第一의 天文學者 Newton 은 실제로 각자가 제안하였던 것 같이 反射鏡을 두고 望遠鏡을 만들었으나 망원경의 照準을 대상물에 합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다른 결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皇帝는 하부의 반사경의 중앙에 있는 구멍이 반사광선의 분량을 감소시키고, 그 반사경의 주위에 微小한 것을 만지만 반사광선의 감소량을 보충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물체가 반사하는 광선은 하부의 반경에 의하여 對向하는 小반사경에 반사되고, 이 小鏡이 눈에까지 굴절시켜 반사되고, 눈에는 色消된 對眼렌즈를 통하여 들어온다는 것등을 說明하였더니 乾隆은 유럽인이 가진 발명의 재주

67) 『中國の醫學と技術』 pp. 359~60.

68)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 5, 紀行編, pp. 338~41.

를 칭찬하고, 용이하고 신속하게 望遠鏡을 움직이게 하는 Mechanism 을 칭찬하였다.⁶⁹⁾ 이와같은 망원경의 원리이해는 그의 인식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망원경이 欽天監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이해나 취미를 충족시키는 완구로서 그쳤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여하튼 地動說, 망원경이 기초가 되는 天文 曆法에 관한 乾隆의 이해의 한 예를 든다면 1761年 元旦 午時에 日月이 合璧하고 五星이 聯珠하니 아울러 繪圖하며 呈覽하라고 하면서…… 朕은 天文 象緯에 본래 深究하지 못하지만 결코 강하게 모른다고도 할 수 없다. 다만 생각컨데 日月 五星은 行하는데 常度가 있고 史傳에 기록된 바 高陽氏때에 五星이 營室에 모였으나 年代가 荒遠하여 가추어 논하기 어렵고, 漢 高祖元年(BC206) 같은 때에 五星이 東井에 모였고, 宋 開寶元年(968)에 五星이 奎에 모였으니 거의 천여년에 한번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實가 되고 僞가 됨은 역시 규명하기 어렵지만 雍正 3年(1725年)에 日月이 合璧하고 五星이 聯珠하였으니 宋으로부터 7,800년 되었다. 이제 1725年에서 1761에 이르렀는데…… 어찌 다시 合璧하겠는가……⁷⁰⁾ 라고 하면서 祥瑞의 징조로서 보려고 하였다. 또 欽天監이 上奏하며 1768年 7月 27日(陰)에 東南方에 彗星이 보였는데 星尾가 西南을 가르쳐 占書에 보니 星은 主敗한 곳을 가르켰다. 이에 朕(乾隆)이 생각하기에는 準噶爾를 平定하였을 때 彗星이 西北을 가르켰다……는 사실⁷¹⁾ 등에서 欽天監의 역할이나 乾隆의 曆算에 대한 이해는 매우 유치하고 비과학적이며 후진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發達된 西歐儀器가 曆算外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乾隆이 地動說이나 望遠鏡의 원리를 얼마나 이해하였는지는 모르지만 欽天監의 역부에 약간의 발전적 역할을 하였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排氣機에 관하여는 Benoist가 수개월 정리하여 기계의 이론과 용법에

69) 『中國の醫學と技術』 pp. 360~61.

70) 『乾隆實錄』 卷 627, 14a-16a, (25年 12月 丙申)

71) 앞책 卷 840, 2b-4a (34年 8月 庚戌朔)

관한 설명서를 만들고 그 사용법안에서 진기한 용법 20여종을 선택하여 中國墨으로 그 용법을 설명하고 그림을 묘사하여 皇帝에게 헌상하였는데 乾隆은 宦官에게 그 용법을 배우게 하였고, Maricourt 등에게 배기기를 해체시켜 그 부분품을 하나 하나 진열시켰고, 어전에서 공기의 壓搾 팽창을 비롯하여 공기의 각종 특성에 관하여 실험을 宦官에게 시켰다. Benoist는 排氣機의 上昇, 下昇, 피스톤 活栓의 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皇帝는 排氣機를 구성하는 각 장치의 기능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Benoist는 21종의 실험을 하였는데, 6종은 공기의 압력에 관한 것이었다. Benoist는 排氣機 실험에 앞서 晴雨計, 寒暖計等을 가지고 天氣의 晴否에 의하여 기압의 變化를 증명하였고, 정확치 못한 사정도 설명하였다. 또 排氣機에 의하여 공기壓력과 팽창과를 증명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皇帝는 오랫동안 排氣機 옆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Benoist는 排氣機를 「공기 실험을 행하는 Pump」라는 의미로 「驗氣筒」라고 하였는데 「候氣筒」(칙명에 의하여)로 改名하게 되었고 皇妃나 貴嬪에게도 이 실험을 관람시키고 西洋의 美術品을 수장한 西洋樓에 보관시켰다.⁷²⁾ 이 排氣機의 용도 역시 天文曆法의 一翼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活用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世界地圖(橫 12 呎에半, 縱 6 呎에半)의 제작은 Benoist가 乾隆帝를 위하여 여가를 틈타 하였다. Benoist는 地球와 天球, 大地와 他惑星의 운행에 관한 새로운 조직,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彗星에 관한 說明書를 加하였고 地理學과 天文學을 완성시키기 위해 Louis XIV가 취했던 기획의 개요를 썼는데 Benoist는 여러가지 天文現象을 관측하고 地球의 緯度와 經度를 정확히 관측하기 위해 世界各地로 여행하고 환영받았다는 것을 쓰고, G.D. Cassini, A.N.C. de La Caille, Monnier 등의 기록을 인용하였다. 이때 乾隆은 天文學과 地理學에 관하여 장시간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이 地圖에 새로 발견된 나라들, 新進의 地理學者들이 삭제한 것을 삭제하고, 舊諸國도 새로 조사 확인된 위치에 두었다. 이 결과 地圖는 複本은 만들어, 두개

72) Benoist의 第1, 第3書簡 參照.

의 地圖중에 하나는 宮中, 하나는 국가의 地圖保管所에 두고, 宮中 翰林院에서 종사하는 학자 중 2,3 사람을 뽑아 문장을 다듬고 訂正시켰는데⁷³⁾ 이것이 1767年 완성된 坤輿全圖였다.

그후 乾隆은 1772年 中國全土와 邊疆諸國의 新地圖作成을 요구하여 Benoist의 책임하에 제작되었는데 銅版으로 中國全圖를 인쇄하였다. 큰 지도는 104 杖의 도판으로 成立되었고, Benoist는 숙련된 中國工匠을 선택하여 銅版을 조각시켰다. 이 地圖의 제작을 위해 선교사들은 準噶爾지역에 들어가 실측에 종사했다.⁷⁴⁾

이 坤輿全圖나 皇朝內外臺統輿地의 제작에서 특히 후자의 경우는 이미 康熙年間 제작된 皇輿全覽圖를 model로 새로운 新疆一帶를 보충한 것이지만 國家的인 요구, 필요성에 부응한 것이다.

그리고 圓明園內的 噴水와 洋館이 건설 되었다.⁷⁵⁾ 특히 분수는 1747年 乾隆이 서양분수의 그림을 보고, 그 제작을 원하였기 때문에 Castiglione가 Benoist를 추천하여 天文學者인 그가 泉水學者로 이일을 맡아 분수의 모형도를 만들어 皇帝의 御覽을 받아 長春園의 北路에 그 땅이 선정되었다. Benoist는 深遠한 水力學을 응용하여 噴水を 설계하는 기술상의 고심

73) 『イエズス會士中國書簡集』 6, 信仰編, pp. 348~50.

74) 이 「皇朝內外臺統輿圖」는 「乾隆內府銅版地圖」 「乾隆十三排地圖」라고도 불리며 da Rocha, d'Espinha 등과 그림은 Gaubil이 그렸고 乾隆의 準噶爾정벌 결과 中央 Asia 方面이 상세하다. 宣教師들이 실측을 위해 戰役地에 갔다는 것을 더 나아가 戰役에 종사하였다고까지 언급되고 있다. <後藤末雄 안책 pp. 190~192, 232. 『乾隆實錄』 卷 490, 28b-29a (20年 6月 癸丑) 527, 14b (21年 11月 丙辰) 586, 1 ab (24年 5月 庚辰朔) 참조.>

75) 圓明園은 北京 西直門밖, 皇城의 西北公里에 있는 暢春園, 長春園, 萬春園을 비롯한 麗園을 포함하며 현재 萬壽山 離宮도 원명원의 일부이다. 圓明園은 Attiret의 표현에 따르면 人口 6~7 萬을 가진 Dijon市の 넓이와 같으며, 康熙帝에 의하여 雍正帝(雅親王)에게 하사되었고, 乾隆에 제승되었는데, 乾隆은 특히 그 風光을 사랑하여 大增築을 가하였고 Attiret의 보고서나 「圓明園前記」(雍正) 「圓明園後記」(乾隆)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大洋館을 中國의 Versailles 宮殿라고 할 정도로 圓明園內에 호화판으로 설치하려 하였으나 Benoist의 건강이 좋지 않아 第二洋館(海棠堂), 第三洋樓「遠瀛觀」이 건설되었다. (後藤末雄, 안책, pp. 169~70, 文獻叢編 上, pp. 513-533. 方豪, 「嘉慶前西洋建築流傳中國史略」 『大陸雜誌』 第一輯, 7冊 臺北, 1970, pp. 104~109.

을 겪었고 무지한 中國人을 감독하여 공사를 진척시키는 데에도 고심하였다. 또 朝臣들중에는 洋館이나 분수의 構築이 國家의 재해를 야기시킨다는 迷信的인 풍문을 믿었기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여하튼 第一洋館 「諧奇趣」의 前面에 第一의 분수가 준공되었다. 池塘 水中의 禽獸가 입에서 물을 마시는 「禽獸水合戰」의 모습이 들어났고 그후 乾隆은 이 水壓 장치나 분수, 저수지의 모형을 비롯하여 이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⁷⁶⁾ 그후 第三의 遠颯觀에 몇마리의 개가 池中에 사슴을 향하여 입에서 물을 토하는 「개에게 쫓기는 사슴」이라는 이름의 분수가 세워졌다. 乾隆은 도처에 분수의 설치를 명령하였는데 中國과 같이 과학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국가에서 水力學을 응용하여 분수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고 Benoit의 치밀한 천부적인 능력으로 난관은 극복하였는데 이러한 분수제작은 그의 사치한 취미의 극단적인 면을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하다.

繪畫에 관하여는 現在 Castiglione 등의 많은 작품이 남아 있는데 II章에서 前言하였다. Castiglione, Attiret, Panzi, Sichelbarth 등은 人物畫 故事畫 動物畫 戰勝畫等 많은 그림을 그렸다. 乾隆은 이미 19才以後 花鳥畫에 주력하였고 繪畫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므로 勅命에 의하여 그린 후 御覽을 받고 皇帝의 비판과 수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 透視畫法과 陰影畫法같은 기본적 용법은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故로 天子의 주문에 따라 그리는 예술가가 아닌 幫間의 존재였고 油畫보다는 乾隆은 中國水墨畫를 좋아했고, 충실한 사실화를 애호하였기 때문에 西洋畫의 예술성이나 當時의 사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中國畫도 아니고 西洋畫도 아닌 乾隆의 취미에 맞는 종합의 형태로 나타났다. 準噶爾 回部等의 戰勝圖는 불란서 戰勝圖를 답습한 것으로 乾隆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銅版化가 불란서에서 진행되었다.⁷⁷⁾ 따라서 西洋美術이 中國繪畫에 미친 영향은 전혀 배제

76) 後藤末雄 앞책, pp. 163~169.

77) 註 20-22 참조.

向達 “明清之際中國美術所受西洋之影響,” 『唐代長安與西域文明』, 臺北, 明文書局, 1981. 『乾隆實錄』 卷 871, 31b-32b (35年 10月 庚子) 得勝圖의 구체적 내용은 方濠의 앞책에서 판연인물들의 항목, 後藤末雄의 앞책 pp. 184-5 참조.

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평가할만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乾隆의 개인 취미, 관심의 범위를 벗어나 明清時代 繪畫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다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한 것이었다.

以上에서 매우 소략적인 西學理解와 그 活用に 관하여 보았다. 그는 科學技術藝術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부분적으로는 그 원리나 이론의 근거까지 파악하였다. 그러나 그 이해가 대부분 취미 생활이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면을 지녔다.

曆算에 관한 부분은 기존적인 것의 계승이었고 特히 乾隆이 요구하였던 것은 排氣機, 분수, 中國地圖, 繪畫等이었다. 물론 康熙年間に 비해 1世紀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科學技術의 면에서 발달된 점도 많았다. 그러나 물론 건물이 단순한 취미, 개인 흥미에서 수용하였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宣教師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西洋學問의 中國유입에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가라고 할때 반성의 여지를 가진다.

V. 論 評

18世紀 全盛을 대변하는 乾隆의 西學觀은 如何한 것인지. 主知하는 바와 같이 康熙의 관용과 雍正의 嚴正을 종합하여, 政治社會經濟文化 모든면의 안정기에 그 영화를 누린 人物이 乾隆이라고 한다.

17, 18世紀 예수회 선교사들을 선두로 Dominicans, Franciscans, Augustians, Paris 外邦傳道會, Lazarist 등 여러 교단의 中國傳教는 天主教 전파라는 근본목적과 그 적응적인 方法으로서의 西洋의 科學技術, 藝術의 제한된 유입이 있었다. 康熙의 학문적 호기심이 天文 曆法 數學에서 비롯하여, 예수회 선교사들에 대한 총애, 천주교 公許라는 사태로 발전했던 것에 비해, 雍正은 Morao 사건 및 기본적인 그의 정책, 성격으로 인하여 기존의 技藝증사자를 제외하고는 배격정책을 썼다. 이러한 두 先帝의 대조적인 의식과 정책에 비하여 西學受容에서도 乾隆은 종합적인 형태로 나타

난다.

乾隆이 담력과 신동으로써 祖父 康熙의 총애를 받게 된 후 密健法에 의하여 즉위하기 까지 그는 皇帝가 되기 위한 충분한 교육과 소양을 쌓았다. 그는 宣教師들을 철저히 이용하여 朝廷奉仕者 즉 하급고용인으로 諸役割을 담당시켰고 자신의 學問의인 관심과 개인의 취미를 반영시켜 나가고 있다. 그가 선교사들을 학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 부터 궁중에서 皇帝에게 사역되는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성격, 자신감, 능력이 비단 선교사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인간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當時 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人物은 Castiglione 와 Benoist 였다.

當時 이미 天主教에 대한 禁教 政策에 의하여 宣教師로서의 活動은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乾隆은 이들의 目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平生을 통하여 職務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曆算, 화가, 통역관, 의사, 시계공, 음악가, 정원사, 측량가, 지도제작자로 다스렸다. 그리고 지방 監牧자의 지원자로서의 역할도 전혀 단절되었다. 결국 이들 선교사들은 자신의 종교 생활만을 영위하면서 한가닥의 희망과 기대를 위하여 中國에서 활동한 것이다.

宗教인 天主教인식은 매우 비판적인 것이었다. 滿人, 滿洲旗人, 漢人은 天主教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전교하라는 것인지 애매하며, 이에 대한 답은 宣教師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보겠다.

乾隆의 天主教인식은 異教 僞敎로서 표현되었었지만 「거짓됨이 있고 악한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듯이 심각한 邪敎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결국 天主邪敎로 박해의 대상이 되고 父子因緣의 결별, 嗜欲금지, 종신독신생활, 國王(法王)위해 行敎, 幻術, 詭行, 番册에 성명기재하여 Rome 에 보내는 점, 의식, 세례 聖體 終油等 많은 문제점을 의식하였지만 반항적인 정신을 고취시킨다. 즉 反亂의 소지가 있다

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白蓮教 回教등과 연결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그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경하며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1780年代까지 명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天主教 전교의 한 성격이며 실제로는 그 이상의 성과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西學理解와 活用이라는 측면에서 天文 曆法관계의 제기구, 地圖, 취미로서의 繪畫等에서 개인의 관심과 취미를 벗어나서 活用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고려할때 그의 서정적, 향락적 완구에 지나지 않았다고 본다. 排氣機 望遠鏡 地動說 근대 天文學의 이해가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면 中國의 科學文明, 이 시기 西洋文化의 유입이 19世紀 半식민지화의 중국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逆으로 宣教師들 역시 이 점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받은 대우를 생각한다면 매우 무리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本 論文은 1984年度 韓國文化研究院 研究費(梨大) 지급에 의한 것임)